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2025. 12.

**관세청**

# || 목 차 ||

I. 추진배경 .....	1
II. 추진방향 .....	4
III. 주요 추진과제 .....	5
1.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 구축 .....	5
2.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	7
3. 국내외 단속기관 공조 .....	10
4. 단속 인프라 확대 .....	12
5.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적발·수사·분석 등) 강화 .....	16
6. 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병행 .....	18

# I. 추진 배경

## ① 마약밀수 동향 ⇨ 매년 마약밀수 급증, 대형화, 코카인 생산량 증가

- 국내 적발이 매년 증가,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 경유 목적의 최대 규모 밀반입 적발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송·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도 증가 추세
      - \* '24년 필로폰 2건, 40kg (특송 20kg, 여행자 20kg), '25년 대형 코카인 2건, 2,290kg 적발(4월 강릉 옥계항 1,690kg, 5월 부산신항 600kg) 등
  - 세계적으로 코카인 생산·압수·투약자 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23년)
    - \* 콜롬비아내 불법 재배 등으로 급증, 생산과 소비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 평가(UNODC)
- ※ **全世界 대륙별·국가별 마약 동향 지도** 참고 (#붙임 참고)

## ② 가장 효율적 대책 ⇨ 국경단계 차단, 반입되면 은밀한 거래로 단속 곤란

- 국내 유통 마약의 대부분은 해외 밀반입으로 추정되며, 국내수요 증가와 해외 대비 높은 국내가격\*으로 밀수시도는 증가 예상
    - \* 필로폰 1g 당 가격은 태국 3만원, 미국 3만 5천원으로 국내 25만원의 1/8 수준
  - 마약밀수 범주는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국내 마약사범의 총규모는 실제 적발 건의 약 28배로 추산\*\*
    - \* 암수범죄(暗數犯罪) :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지 아니한 채 공식적 통계에 기록되지 않는 범죄
    - \*\* 세명대 박성수 경찰행정학 교수, "마약류 범죄의 암수율 측정에 관한 질적 연구"(19)
-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와 외국세관과 국제공조\*\*를 통한 국경단계 선제 대응이 가장 효율적
    - \* 국내 전체 압수 마약의 78.4%를 통관단계에서 적발(최근 5년 기준)
    - \*\* 국제공조 적발: 2건('20년) → 5건('21년) → 110건('22년) → 68건('23년) → 140건('24년)

# 불임소 세계 대륙별·국가별 마약 동향 지도

※ (출처) 세계(UNODC)·유럽(EMCDDA) 마약보고서, 세관적발 + 범죄백서(검찰) + 세계 언론보도 등

## ◆ 유관기관 등 현황

- (UNODC) '97년 설립된 유엔기관으로, 매년 세계 마약 보고서 발행
- (DEA) 美 법무부 소속으로 마약수사 핵심 전문기관이며 최고 권한 보유
- (CBP) DHS(국토안보부) 소속으로 국경단계 1차 단속 역할, 미국 남서부 국경과 입국항에서 집중 단속 실시 중
- (HSI) DHS(국토안보부) 산하 ICE(이민세관단속국) 소속, 멕시코발 공급망과 신종 마약 확산 방지가 도전과제

- (주요 마약) 펜타닐, 코카인, 대마초 등
- (동향) 미국의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70%가 펜타닐 관련, 미국 정부는 주요 공급경로로 멕시코와 중국 지목
  - (미국) 가짜 펜타닐 압수량 급증세, 베네수엘라 국적 마약 운반선 폭파 등 마약범죄 강력 대응 중 ('25.9월)
  - (멕시코) 시날로아·할리스코 카르텔이 미국내 코카인, 필로폰 등 마약 거래 대부분 주도, 갱 거버넌스 상태

- (주요 마약) 대마초, 코카인, 신종 합성마약 등
- (동향) 유럽 성인 1.5%가 매일 대마초 흡연, 청년층의 2.7%(270만명)가 '24년 코카인 사용 (25유럽마약보고서)
  - (프랑스) 코카인 47톤 압수('24. 1~11월 '23년 23톤의 2배)
  - (폴란드) 유럽의 합성 카티는 생산 중심지
    - ※ '23년 해체된 53개 생산시설 중 40개가 폴란드 소재

## ※ 우리나라 주요 적발 및 대응

- ① (대형 코카인) 중남미궤 연속 적발 (4월 1,690kg, 5월 600kg)
- ② (은닉) 선박내 기관실, 공컨테이너 이용
- ③ (단서) 정보입수 + 추가분석
- ④ (대응) 중남미궤 선박 및 공(空)컨테이너 집중검사

- (주요 마약) 코카인 등
- (동향) 남미 카르텔이 촉발한 마약의 세계화가 계속해서 확대 중
  - (페루·콜롬비아·볼리비아) 세계 3대 코카인 생산지
  - (에콰도르) 남미산 코카인의 유럽행 관문, 최근 국내에서도 적발

## 남아메리카

■ 페루·에콰도르 궤

- (주요 마약) 코카인, 대마초, 필로폰 등
- (동향) 서아프리카는 유럽향 코카인 주요 경유지, 전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44% 차지
  - (가나) 남미발 코카인 3.3톤 적발('25초, 유럽행 추정)
  - (남아공) 1,500억 규모의 필로폰 원료 적발('24.7월)

## 아프리카

- (주요 마약) 필로폰, 아편, 코카인 등
- (동향) 아시아 지역으로 코카인 밀수 경로 확대
  - (캄보디아) 마약사범 26만명 체포, 14.7톤 압수 ('24년 기준, '23년 대비 407% ↑)
  - (태국)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필로폰 적발 (약 130톤, '24년 기준)
  - (미얀마) 세계 최대 아편 공급국(약 천톤 추정)

- (주요 마약) 필로폰, 코카인 등
- (동향) 동남아(특히 미얀마궤, 남미(콜롬비아, 멕시코) 등 다양한 경유지를 통해 유입 시도
  - (호주) 해상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235kg 적발('25.5월)
  - (뉴질랜드) 폐수 분석 결과, 필로폰과 코카인 소비가 사상 최고치 기록('24.11월)

## 오세아니아

### 1 경로별 적발 현황

(건, kg,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10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항공여행자	177	148	151	198	140	149	505	269	269
해상여행자	0	0	0	1	0.1	0	1	0	0
국제우편	329	327	251	420	190	139	253	109	72
특송화물	193	275	199	235	392	358	268	226	153
기타	5	19	12	8	66	220	5	2,308	10,578
합계	704	769	613	862	787	866	1,032	2,913	11,072

### 2 품목별 적발 현황

(건, kg, 억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10월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필로폰	155	438	408	153	493	484	98	268	258
코카인	17	11	39	7	68	245	8	2,302	10,604
헤로인	2	1	2	0	0	0	0	0	0
대마	212	143	72	221	53	23	275	102	69
신종마약	430	172	92	515	167	113	618	228	140
기타	39	4	0	146	6	1	213	12	1
합계	855	769	613	1,042	787	866	1,212	2,913	11,072

### 3 우범국궤 적발 현황 (중량기준)

(건, kg)

구분	특송우편		여행자		해상		합계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미국	134	58	192	57	1	6	327	121
태국	59	103	42	24	0	0	101	127
프랑스	12	39	3	25	0	0	15	64
캐나다	18	12	10	76	0	0	28	88
베트남	97	24	35	3	0	0	13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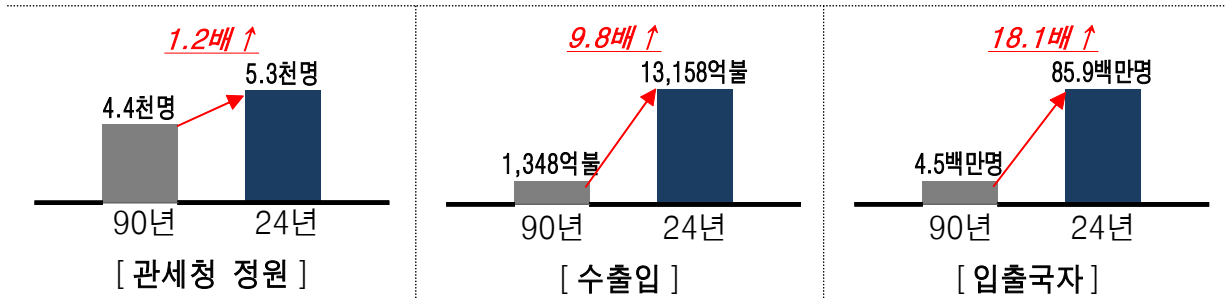
### 4 중남미궤 일본경유 입항선박 현황

(건, 천톤)

구분	중남미궤 입항		중남미궤 일본 경유	
	건수	중량	건수	중량
부산항	1,056	44,431	189	6,562
울산항	633	12,344	116	1,718
여수광양항	802	23,114	84	489
평택항	332	10,217	24	155
인천항	183	7,487	10	48
마산항	170	573	22	61
기타항구	689	29,504	55	732
합계	3,865	127,670	500	9,765

③ 여전히 부족한 인프라 ⇨ **한정된 인력과 장비로 신종마약 등 대처 역부족**

- 통관검사·수사 인력 등은 여행객 수, 물동량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나, 검사·단속 인력의 충원은 요원한 상황



- 밀수차단 실패사례\*에 대한 국회 지적과 언론보도 등 우려의 시선 有
  - \* 영등포경찰서 적발(23년), 국내 밀반입 후 유통단계에서 붙잡힌 말레이시아인 사례
- 기존 장비와 체계로는 낡아 발전하는 마약밀수 은닉수법 적발에 한계
  - 여행자·화물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장비를 확충하고, 마약 은닉수법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마약검색 장비 연구 및 도입 검토 必

④ 단속방안 ⇨ **그간의 단속 노하우를 집대성, 부족한 인프라를 극복할 수 있는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마련·시행**

- 지금까지 쌓아온 단속 노하우를 업데이트하여 고도화된 정책을 마련
  - 마약류 통합위험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우범정보 입수체계를 확대하고 정보 분석·활용을 고도화
  - 마약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공조 강화, 인력·조직·장비·시스템 등 인프라 확대
- 마약밀수 차단 정책 시행과 함께, 국내 마약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예방 캠페인을 병행

◆ **마약의 국경단계 밀반입 사전 차단을 위해 관세행정 소 분야의 역량을 결집한 마약단속 종합대책 수립**

## II. 추진 방향

### 정책 목표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

- ◆ 관세청은 관세행정 **쏠 분야**에서  
그간의 **단속 노하우**를 **집대성**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경단계 마약 밀반입 차단**」이라는 관세행정 **소임**을 완수

### 6대 추진 과제

#### 1.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 ① 마약정보 입수 확대
- ② 정보관리와 활용체계 고도화

#### 2. 반입경로별 사각지대 해소

- ① 마약차단 최우선 통관검사
- ② 적발 추세를 반영한  
경로별·품목별 기획단속 실시
- ③ 마약류 밀반입 사각지대 해소

#### 3. 국내외 단속기관 공조

- ①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 ② 국내 마약사범과 함께  
해외 마약 공급자까지  
쌍방향(듀얼) 단속
- ③ 국내 단속기관과 공조

#### 4. 단속 인프라 확대

- ① 마약 전담조직과 인력
- ② 첨단 검색장비와  
시스템 확대
- ③ 마약검사 전용 시설 및  
전문가·탐지견 양성  
훈련센터 구축

#### 5. 상시 점검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

- ①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  
위원회 등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② 마약 적발·수사·분석 등  
역량 제고

#### 6.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병행

### Ⅲ. 주요 추진 과제

#### 1. 마약류 위험정보 통합관리 활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마약 적발을 위해서는 타겟팅할 수 있는 정보 입수·분석·활용이 필수

##### ① 마약정보 입수 확대

###### ① 국내 마약단속기관이 보유한 우범정보 수집 확대 (기존 4개 → 6개 기관)

- (정보입수) 마약 밀수·유통 사범의 정보와 함께  
투약·밀조 사범 등의 주민번호·여권번호 추가 입수 추진

■ (기존) 법무부·외교부·대검·과기부 마약사범 → (개선) 국방부 군 마약사범, 식약처 마약류 과다처방자 추가

\* 관세법 시행령 §263조의3(마약류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 개정(기재부 심의 중)

###### ② 주요 마약 생산·유통국과 해외 마약정보 네트워크 구축

- (협력창구) 마약단속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한 아·태 18개국\* 및  
주요 마약 출발국\*\*과 지속 가능한 다자간 소통 창구 구축

\*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 등 아·태 지역 국가 // \*\*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 (수집정보) <sup>수시</sup> 한국행 마약 밀수출 현지 적발 정보,  
<sup>정기</sup> 해외 마약 적발사례 등을 수집하여 국내 마약단속에 활용

###### ③ 마약 밀반입 경로·품목별 단속정보 입수 확대

- (여행자) EU국적 항공사로부터 승객예약자료(PNR) 확보 추진

■ (기존) EU국적 항공사(5개)에 제출의무 유예 중 → (개선) PNR 제출의무 부여

- (특송) 특송화물의 배송지 정보 제출 의무를 특송업체에서  
실제 배송한 자(국내 운송업체)까지 확대

- (원료물질) 마약 원료물질 불법반입 차단을 위해 국내외 제조정보 입수

## 2 정보관리와 활용체계 고도화

### 1 마약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마약정보센터 신설

- (조직) 본청 마약정보센터 신설, 세관부서별 마약정보관 활용
- (기능) 적발·외부·분석 정보를 통합한 마약정보는 전국 세관에 신속하게 공유하여 선별·검사·수사 등 마약 단속에 활용
- (시스템) 통합위험관리(IRM) 시스템의 마약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 하여 모든 마약정보의 통합 관리·활용 체계 구축

■ (기존) 내부 적발정보만 등록, 활용 부족 → (개선) 적발·외부·분석 정보 통합관리·활용

### 2 마약 우범 여행자·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활용 절차 표준화

- (분석·활용) 마약밀수 적발정보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분석으로 생산한 우범지표는 모든 밀수경로에 통합 적용하여 우회 밀수 차단

■ (분석대상) 기존 별도 기준 없음 (분석 누락 우려) → 개선 분석기준 마련  
■ (분석기간) 기존 제한 없음 (분석중 추가 밀수 우려) → 개선 정보입수 후 10일내 분석완료  
■ (활용방법) 기존 해당분야에만 적용 → 개선 여행자·특송·우편 등 모든 경로에 공통 적용

- (분석 결과) 우범자 관리는 APIS\*로 일원화, 알림이\*\*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도출된 우범자는 검사대상으로 필수 지정, 검사누락 방지

\* 여행자정보 사전확인 시스템 // \*\* 등록된 여행자가 들어올 때 문자로 통보하는 시스템

■ (기존) 특정부서만 열람 가능한 알림이와 모든 세관 열람 가능한 APIS를 혼용 → (개선) 모든 세관이 열람 가능한 APIS로 우범여행자 관리 일원화

### 3 적발 통계 등 관리 강화

- (주요 현황) 마약 관련 주요 동향(대륙별·국가별 특이사항, 적발 시사점 등)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대외 설명 및 대내 선별·검사 자료로 활용
- (실제가격 등) 조사 시 실제거래가격·결제방법(환치기, 가상자산 여부 등) 등을 필수 조사, 기간·지역·거래방법·급등락 등 연관분석

## 2. 통관단계 반입경로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 ◆ ①마약 차단 최우선의 통관검사, ②적발 추세를 반영한 기획단속, ③환적화물 등 사각지대 해소를 마약 밀반입 시도를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

### 1. 마약 차단 최우선 통관검사

#### ① 여행자 신변은닉 등 차단을 위한 검사제도 보완

- (검사) 신변·기내수하물에 은닉한 마약을 적발하기 위해 우범항공편 착륙 즉시 일제검사(Landing 125\*) 실시
  - \* 인천공항 T1 시범운영(25.1월~3월) → T1 본격운영(25.4월~) → T2 확대시행
- (법령) 마약은닉 의심자 신체 검색 근거를 명확화(관세법 개정)하여 적극적 검사업무 수행 기반 마련

■ (기존) 물품·운송수단 등에 대한 일반적 검사권한 → (개선) 사람을 포함한 신변검색 근거 명확화

#### ② 특송·우편화물 마약 전담·집중 검사 및 통합 위험관리

- (집중검사) 마약 우범국발 전담 검사대를 설치하고 적정 판독시간(7초 이상)을 보장하는 X-Ray 집중판독제 시행

■ (기존) 물류흐름 고려 3초 이내 판독 → (개선) 마약검사 전담 라인 설치 및 고경력자 중심 집중 판독

- (위험관리) 최신 마약사범 정보 등을 활용하여 우범 발송업체의 해상특송·국제우편 연계 적발 D/B를 구축, 운송업체·수취인별 위험관리

■ (기존) 항공특송 우범화물 선별시스템 활용 → (개선) 해상특송·국제우편까지 확대

#### ③ 일반 수입화물 물류 흐름별\* 2단계 마약 검사

\* 적하목록 제출(입항) → 양륙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 창고 반입 → ② 수입화물 검사 → 반출

- (관리대상) 주요 항만(부산·인천·평택 등)에서 특별 마약검사팀을 운영, 화물 양륙 후 창고반입 전에 우범화물 집중검사

※ 주요 항만 수입화물 특별 마약검사팀 구축

- (수입검사) 국내외 마약적발 패턴을 반영하여 선별기준을 개발하고, 휴대용·차량 이동형 X-Ray를 활용하여 화물 검사 강화

#### ④ AI X-Ray를 활용한 관독 이중화

- AI X-Ray를 활용하여 마약우범 화물을 1차 선별·검사, 비선별 화물은 X-Ray 전담직원이 2차 선별·검사하는 이중 관독 시스템 구축

■ (기존) X-Ray 관독 > 이상 無 > 반출 → (개선) AI 관독 > X-Ray 관독 > 반출

#### ⑤ 마약 탐지견 추가 배치 및 탐지활동 확대

- 선박을 통한 대규모 마약밀수 대응을 위해 탐지견을 미운용 항만에 우선 배치\*하고 공항만 우범여행자에 대한 탐지활동 대폭 확대\*\*

\* 속초항 배치('25.7월~, 2두), 부산항·울산항은 추가 배치 // \*\* 여객터미널 기준 일 12회 → 16회, 33% ↑

## ② 적발 추세를 반영한 경로별·품목별 기획단속 실시

- 트렌드와 적발통계를 바탕으로 경로별·품목별 기획단속 실시

### [예시#1] 최근 마약류 밀수 동향

- 페루·에콰도르 등 중남미發 선박에서 대규모 코카인 연이어 적발

일자	내용	비고
'25. 4.	페루발 코카인 1,690kg 적발(선박내 기관실 은닉)	옥계항
'25. 5.	에콰도르발 코카인 600kg 적발(공컨테이너 이용)	부산신항

\*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World Drug Report 2025] 최근 아시아 지역이 코카인의 종착지 또는 중간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

⇒ **중남미發 선박 및 공(空)컨테이너 집중검사**

### [예시#2] 적발 통계

- '25.7월 여행자의 케타민·대마초 적발 증가, 특히 대마류는 2년간 9~10월 적발 ↑

구분 (적발량)	여행자			여행자 대마류 적발 건수('23년/'24년)					
	필로폰	케타민	대마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3	79,210	22,325	14,712	6/5	3/4	0/2	5/2	6/3	4/7
'24	94,829	7,773	9,4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7월	55,261	28,356	22,762	2/11	0/4	11/10	6/8	6/4	5/1

⇒ 9~10월 **대마초 우범 여행자 검사율 ↑**

※ 성공적 단속을 위해 필요 시 조사·통관·감시 등 쏠 분야 동시 투입

### 3 마약류 밀반입 사각지대 해소

#### ① 환적화물 집중검사체 도입

- (해상) 환적 컨테이너 집중검사 기간 운영, 우범화물 선별기준을 개발하고 차량형 X-Ray(ZBV)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검사 강화
- (항공) 국내외 수사기관 등의 단속정보를 활용하여 Sea&Air 환적 화물에 대한 출항 전 개장검사 실시

#### ② 마약류 원료물질 통관관리 강화

- 마약 원료물질 선별기준 고도화(제조정보 반영 등)로 우범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휴대용 라만분광기\*를 활용한 현장 검사를 강화

\* (라만분광기) 레이저를 이용, 최대 12,000종 물질을 1분 이내 분석·판별

#### ③ 위치정보를 활용한 우범선박 선별·검사

- (선별강화) 통합항만감시시스템(IN-POSS) 항적정보를 활용, 비정상 이동, 우범항구 경유, 선박자동식별장치 차단 여부 등으로 우범선박 선별
- (검사강화) 동·서·남해 권역별로 선내·선저(수중드론 활용) 정밀검사 확대

#### ④ 공항만 출입자 및 출입차량 감시 강화

- (사람) 공항만 종사자와 선원 등을 이용한 밀수 차단을 위해 CCTV 감시를 강화하고 선원\* 등의 마약 휴대 여부 검사 강화

\* 하선자 명단을 제출받고 우범국궤 선박의 선원 등 하선 시 집중검사

- (차량) 항만공사 등 부두 관리주체와 협력하여 우범차량 부두 출입시 검색

#### ⑤ 지역 공항 우회반입 차단

- 지방공항만 통관직원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의 정보분석, X-ray 판독, 마약검사 기법 등을 공유하고 정기 순회교육 실시

### 3. 국내외 공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 글로벌 합동단속, 해외 마약공급자 단속으로 국내 마약 반입 이전 단계에서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 단속기관과 공조로 마약수사의 실효성을 제고

#### 1 국제 합동단속 작전 확대

##### ① 주요 마약 출발국과 합동단속 작전 확대\*(기존 5개국 → 10개국)

\* '22년 태국 → '23년 추가 베트남, 네덜란드 → '24년 추가 말련, 미국 → '26년 예정 독일, 캄보디아, 라오스, 캐나다, 프랑스

- 캄보디아, 라오스·미얀마를 추가한 골든트라이앵글 쏘지역과 공조\*, 한국행 우범화물은 출발국 국경과 우리 국경에서 각각 정밀 개장검사

\* 범죄조직의 이동 가능성 대비

##### ② 다자 국제 합동단속 선도

- WCO RILO AP와 공동으로 아·태 지역 마약공급망\* 차단을 위한 마약류 국제 합동단속(OP Pacific Shield\*\*)을 매년 추진

\* (생산) 골든트라이앵글 등 → (경유) 동남아시아(태국 말련 등) → (도착) 아태 전역(한국 일본 호주 등)

\*\* ('25) 한국 주도, RILO AP 35개 회원국 및 ASEAN 국가 참여

- '26년에는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NCB (유엔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TERPOL (국제형사경찰기구)과도 다자간 협력을 확대

#### 2 국내 마약사범과 함께 해외의 마약 공급자까지 쌍방향(듀얼) 단속

- (현황) 특송·국제우편 이용 마약류 반입(전체 단속의 76% 비중)과 관련하여 국내 수요자 위주 단속(해외 공급자 단속에는 한계)을 실시
- (대응) 적발 시 배송정보(발송인·송장번호·전화번호·주소·품명 등) 관리를 의무화하고 해당 정보를 마약발송국 단속기관에 제공, 필요 시 합동단속을 실시

- (1단계 입력 의무화) 특송·국제우편 마약 적발건에 대해 배송정보를 입력 ('25.7월 이후 건 우선 입력)
- (2단계 자료제공) 을 하반기 적발실적부터 특송·국제우편 적발비중이 높은 국가 대상\* 우선적으로 자료 제공\*\*

\* 태국 60% > 미국 13% > 독일 6% (중량 順, '24년 기준)

\*\* 추후 정보제공한 해당국가와 합동단속 추진 및 단속결과 통계관리로 효과성 제고

※ (선별활용) 현재 발송인 정보 C/S 등록은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나, 입력 관리가 된다면 반입검사에도 유용한 정보활용\* 가능

\* 예) 마약 적발이 빈번한 발송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검사율 ↑

- (기대효과) 공급자 단속으로 특송·우편의 마약 밀반입 예방, 한정된 자원 투입없이 불법 공급자 단속 효과

■ (추진일정) 배송정보 입력 의무화(~'26.2월) → 태국, 미국 등 해외발송국가 사전 협의 (~'26.1분기) → '25.下 공급자 정보 제공('26.4월)

### 3 국내 단속기관 공조

#### ① 국내 단속기관과 수사협력 체계 구축

- 세관·경찰간 정기적 소통·협력 체계\* 구축으로 업무 협업 및 합동수사 등 적극적 수사협력 추진
- \* 연관 사건의 사실관계 최우선 확인 체계 구축, 관세청-경찰청간 마약단속 협력회의 등
- 세관·검찰·경찰 등과 마약사범 합동분석팀을 구성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분석(긴급대응 필요시 즉시)하여 도출된 우범자 집중검사

#### ② 범정부 마약범죄 단속 협의체 적극 참여

- 국조실·식약처·검찰·경찰 등 국내 마약단속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마약범죄 단속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마약범죄 척결 지원
- \*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파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인천·부산 지검 파견), 마약류대책협의회(정기·수시회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연 2회 특별단속)

## 4. 단속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 첨단화·지능화되는 마약범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①전담 조직·인력, ②첨단 장비와 시스템, ③마약전담 검사시설 등 보강

### 1. 마약 전담 조직과 인력 보강

#### ① 여행자 분야 마약검사 등 전담인력 재배치 (13개팀 62명)

- 마약검사 전담팀 (통관)과 수사지원팀 (조사)이 전국 공항 마약 전담 검사대 (신규 설치)에서 합동 근무

구분	인천공항 T1	인천공항 T2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공항
전담검사대	4	4	1	1	1	1	1
마약검사(명)	12	12	2	4	4	2	4
수사지원(명)	6	6	2	2	2	2	2
전담인원(계)	18	18	4	6	6	4	6

- 사건인계(통관→조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마약검사에 집중, 피의자 확보 및 공범 여부 등을 현장에서 빠르게 조사
- '26.1월 ~ 6월 (6개월간) 시범운영 후 정규화 진행

※ 시범운영 실시 후 특송·우편 등 분야로 확대 추진

#### ② 수사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 특송·우편을 이용한 마약밀수 증가\*에 따라 수취지 중심 통제배달 수사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인력 증원\*\*

\* (특송) 193건('23년) → 235건('24년) // (우편) 329건('23년) → 420건('24년)

\*\* 주요 적발지인 인천공항과 원거리인 부산, 대구, 광주 등 우선 추진

### ③ 특송 · 우편 · 휴대품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증원

- (특송 · 우편) 정보분석 전담부서 신설 등 각 단속 기능의 전문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증원 추진

- (단속절차) 정보분석 → 신고내역 검증 · 선별 → X-Ray 검색 → 물품 검사
- (조직재설계) 기존 총괄과內 1개팀 정보분석 → 개선 정보분석 + 검증 · 선별 전담과 신설

- (휴대품) 여행수요 회복\*과 공항만 시설 확장\*\*에 따른 인력증원

\* (입국자) 4,356만명('19년) → 4,295만명('24년) // \*\* 인천공항 확장으로 감시영역 2배 이상 확장

### ④ 마약전담 분석센터 구축

- 신종 마약 확대 등으로 분석량이 폭증\*하고 있어, 효율성과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중앙관세분석소와 인천공항본부세관 내 마약전담 분석센터 구축 추진

\* (인천공항 분석실) 1,191건('16) → 3,360건('24), 182% ↑ 실무자 인원은 8명으로 변동없음

## ② 첨단 검색 장비와 시스템 확대

### ① 주요 공항만에 첨단 검색장비 지속 도입

- (신규 도입) 마약류 등 유기물 적발에 유리한 후방 산란방식 기능을 추가한 신형 컨테이너 검색기 순차적\* 도입

\* 부산 신항 1대 최초 도입('25.12월), 이하 내용년수 고려하여 순차 교체

- (확대 도입) 마약적발에 효과성이 확인된 밀리미터 파 검색기, 라만분광기, 이온스캐너 등 마약탐지 장비를 확대\* 배치

\* (밀리미터파) 현재 16대 → '25년+218대 → '26년+1533대,

(라만분광기) 현재 19대 → '25년+423대 → '26년+528대,

(이온스캐너) 현재 99대 → '25년+8107대 → '26년+5112대

## ② 관세청 자체 R&D를 통한 첨단기술 도입

- (X-ray) 컨테이너 은닉 마약류 적발을 위한 AI X-Ray 기술 개발
- (후각센서) 컨테이너 내부 기체를 포집·분석 탐지하는 지능센서 개발

## ③ X-Ray 동시구현시스템 확대 등

- X-Ray 관독직원이 마약우범자(APIS 검사대상) 화물임을 알 수 있도록 화물정보와 X-Ray 영상을 동시 표출하여 관독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구현시스템을 인천공항 T2와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 설치

■ (기존) 인천공항 T1 설치 → (개선) 인천공항 T2, 지방공항 확대 설치

## ④ 마약적발에 활용 가능한 상용 장비 도입과 연구회 운영

- 은닉 마약에 부착하여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한 GPS탐지기 시범 도입\*  
\* 부산세관 1대 시범 도입·운영, 실효성 판단 후 전국 확대 검토
- 현장에 필요한 신규장비 발굴을 위한 ‘장비 연구회’ 운영

## 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구축

- 공급망 정보 기반의 新 통관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위험 마약물품 집중 검사

■ (기존) 해외직구 확대로 해외공급업체(발송인), 거래정보(품명 등) 위험도 관리 한계 → (개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의무화 등을 통해 고위험(미등록 발송인 등) 물품 집중검사

### 3 마약검사 전용 시설 및 전문가·탐지견 양성 훈련센터 구축

#### 1 국제우편물 세관 전용 검사센터 구축

- 충분한 X-Ray 판독 시간, 복수 판독, 마약 전용 검사실 운영 등을 위한 국제우편물 전용 세관 검사센터를 구축

구분	기존	개선
① 세관 검사라인	▶ 우정본 우편물 분류 우선	▶ 마약 통관·검사 전용라인 구축
② 검사 설비 규모	▶ 1개 라인 운영(통상기준)	▶ 3개 라인으로 확대(통상기준)
③ X-ray 판독	▶ 개별 X-ray 부스와 단수판독	▶ 통합판독실 복수 판독
④ 마약 검사공간	▶ 전용 검사공간 부재	▶ 전용 검사실 마련(면적 5배 ↑)
⑤ 탐지견 탐지구간	▶ 탐지구간 5m, 전용공간 부재	▶ 탐지구간 2배, 휴게공간 마련

#### 2 국제 이산화물 검사 시설 확충

- 이산화물 장치장을 증축하여 전량검사가 가능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수기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 운영 등 이산화물 검사 대폭 확대

■ (기존) 면적 1,782.8㎡, 장비 X-Ray 2대 → (개선) 면적 7,697.8㎡, 장비 X-Ray 4대 등

#### 3 X-Ray 판독 훈련센터 신설

- X-Ray 판독 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최신 은닉 수법을 반영한 마약류 검색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 검색 인력 양성

\* 관세인재개발원에 전문 교육시설 설치(25년말), 관세청과 타 기관 직원 대상 X-Ray 검색 교육 실시

#### 4 마약 탐지견 훈련센터 확대·개편

- 정부부처 유일 마약탐지견 육성기관인 「탐지견 훈련센터」를 「마약 탐지견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국내외 마약탐지견 수요에 총괄 대응

\* 훈련동·견사동 시설 증축('28) → 탐지견 확대 양성(98두 → 150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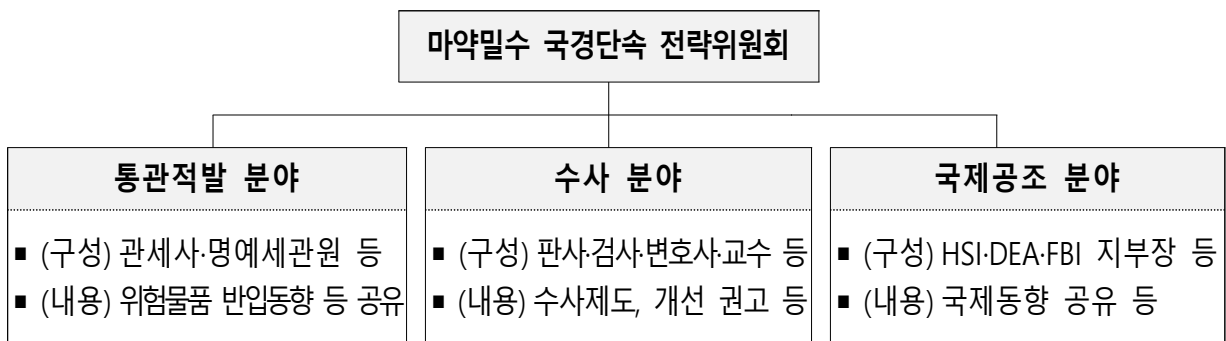
## 5. 상시 점검하고 전문성(통관검사·수사·분석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 통관검사, 국내외 공조, 단속인프라 등을 상시 점검하는 마약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세관의 통관검사·수사·분석 역량을 강화하여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

### 1.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

#### ① 마약밀수 국경단속 전략위원회 출범

-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 정기 회의를 통해 마약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마약수사 정책, 제도개선 등) 논의



#### ②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 정례화

- 추진단(단장: 관세청 차장) 회의를 분기별 정례화하여 정기적으로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보완

- (기존) 현안 발생 시('23년 1회, '24년 4회, '25년 4회) → (개선) 정례화(분기 1회), 수시 현장점검

#### ③ 통관·수사 실무협의체 운영

- 국제조사과장을 단장으로 통관·수사 실무협의체\*를 신설하여 통관부서와 수사부서 간 최신 마약정보 및 적발사례 즉시 공유

\* (통관) 수입·여행자통관·특송·우편 담당 사무관, (조사) 국제조사과 사무관 등

## ② 마약 적발·수사·분석 역량 제고

### ① 통관검사 및 마약수사 전문성 제고

- (검사 전문성) 물품 특성별(특송·우편·휴대품·대형화물 등), 경력별(신규·전입·경력·팀장 등) 맞춤형 역량 강화 커리큘럼 구성, 마약 은닉 수법별 검사 교재 제작, 학습 동호회(검사기법) 지원 등

#### [마약수사과정 운용 예시]

- (기존) 마약조사 실무 과정으로 연 2회 실시 (대상·수준 미구분으로 교육효과 한계)
- (개선) 기초와 실무 과정을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
  - (기초) 매년 1월 정기인사 이후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범칙조사시스템 실습 등 기초교육 실시 (2~3월)
  - (실무) 마약수사 경력 2~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수사 성공 또는 실패 사례의 시사점을 중점 논의하는 등 실무교육 (하반기)

- (수사 전문성) 체포술, 범죄수익 환수, 가상자산 추적 등 전문교육, 해외정보요원 양성, 태국 소재 美 법집행 교육기관(ILEA\*) 파견 교육 등

\* 美 국무부가 외국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마약, 가상자산 등 교육프로그램

### ② 마약류 의심물질 분석역량 강화

- 신종마약류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해외 반입 의심물질에 대한 분석\* (정밀분석 → 분석데이터 해석 → 화학구조 규명) 확대

\* 중앙관세분석소는 신종 합성마약(메스칼린 유사체)의 화학 구조 세계 최초 규명('25.2월) 인천공항세관은 암페타민 계열 등 총 5종의 신종마약류 확인('25년) →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 UNODC, WCO 등 국제 마약류 분석전문가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신종마약류 정보 및 분석사례 수집·활용

## 6. 예방 캠페인을 함께 하겠습니다.

- ◆ 앞서 준비한 마약밀수 차단 정책과 더불어,  
국내 수요 억제를 위해 관세청의 마약단속 활동 대국민 홍보를 병행

□ 마약단속의 일련의 활동 (연간)을 하나의 스토리 형태로 구성,  
캠페인과 홍보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추진

⇒ 목적은 마약에 대한 국민 경각심 제고 및 마약범죄 예방을 홍보

'25.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단속 종합대책 발표</li> <li>■ 마약류 반입 예방 캠페인 (주요 공항만)</li> <li>■ 공항 여행자 대상 마약 반입 유의 홍보 (식약처 합동)</li> <li>■ 특송화물, 국제우편, 지방공항 등 단속현장 점검 (보도자료 배포)</li> </ul>
'26.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탐지견 활동상 등 홍보</li> <li>■ 10대 청소년 교육(예방) 순회 교육 및 홍보 동영상 배포</li> <li>■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li> <li>■ 마약밀수 검거 동향 보도자료 배포 (1월말)</li> </ul>
'26.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관련 언론 기고, 방송출연 등 (관세청장)</li> <li>■ 전자상거래 이용 마약 밀수 사례와 주의사항 등 홍보</li> </ul>
'26.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li> </ul>
'26.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마약 퇴치의 날 행사 참석</li> </ul>
'26.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가철 대비 마약류 반입 예방 캠페인 (공항만)</li> </ul>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약 적발 시 보도자료 (수시)</li> <li>■ 글로벌 합동단속 실시 등</li> </ul>